

2010 광주 세계장애인탁구대회 실사단 에릭슨 단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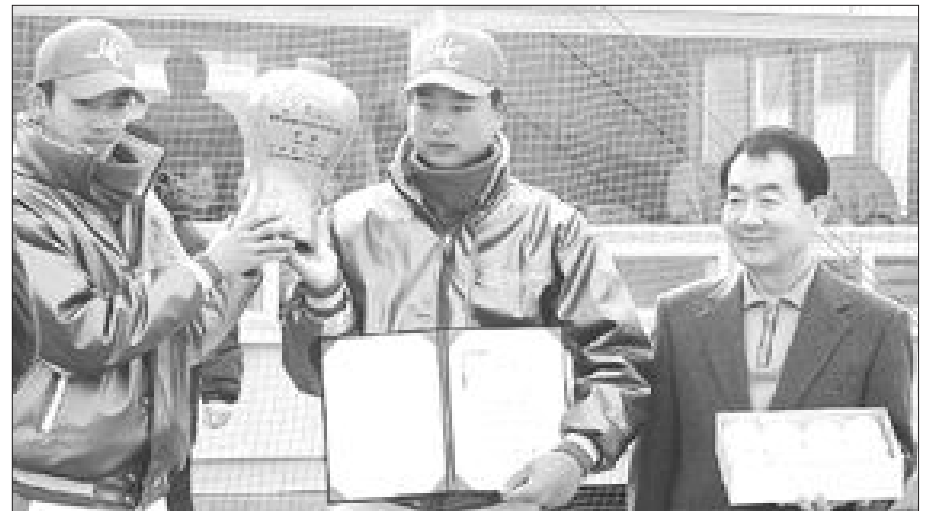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 광주대회 실사단이 지난 20일 영주체육관을 방문해 경기장 규모와 실내 조명 등 대회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순천 효천고, 청자배 고교야구 우승

광주 동성고 준우승

순천 효천고가 '제 1회 청자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강진군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도암면 강진베이스볼 파크에서 전국 8개 고교 야구팀이 참가해 풀리그 방식으로 총 24경기가 치러졌다. 순천 효천고는 마지막 경기에서 광주 동성고에 6대 1로 졌지만 총전적 4승1무1패로 강진베이스볼 파크 개장 첫 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은 광주 동성고가 차지했으며 최우수 선수에는 순천 효천고 이태양선수, 타격상에는 동성고 문진재 선수, 최다 홈런상에는 동성고 유영국 선수, 우수 투수상에는 대구고 이희용 선수가 각각 선정됐다. 강진군은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 수여한 강진청자가 선수들의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앞으로 3년 연속 우승한 팀에게는 대형 고가의 청자를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베이스볼 파크(대표이사 우수



제 1회 청자배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순천효천고 선수들이 고대석 강진 부군수가 시상한 청자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창)은 올해 전국 대학그리전,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등 5개 이상의 야구경기를 유치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경기장·숙소 등 대회 준비 완벽”

숙소 리모델링·각계 각층 관심 감명 받아 광주대회 소개 ‘영문 홈페이지’ 개설 필요

“경기장·숙소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 상태는 매우 만족스럽다. 역대 대회 중 최고의 조건을 갖춘 대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 광주대회를 앞두고 지난 19일 광주를 방문한 국제장애인탁구연맹 오빈 에릭슨(54·노르웨이) 회장이 4일간의 실사를 끝내고 밝힌 총평이다. 에릭슨 회장을 포함 니코 버스펠트 연맹 부회장·앨리스 부철 연맹 사무총장 3명으로 구성된 이번 실사단은 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영주체육관을 방문했던 에릭슨 회장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30m 이내 위치해 선수들의 이동거리가 짧고 경기장 주변엔 넓은 주차장 등 쾌적한 공간이 있어 탁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세계 대회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또한 경기장 내부시설에 대해서도 “조명과 관중석은 대회개최 기준에 적합하며 출입구도 휠체어 선수들이 출입하는데 전



〈에릭슨 회장〉

혀 지장이 없다”면서 “특히 화장실이 많고 깨끗해 참가 선수단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선수단 숙소로 예정된 호텔 4곳을 둘러 본 에릭슨 회장은 “무엇보다 경기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선수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이다”면서 “180여명의 휠체어 선수들은 분산 수용할 숙소가 최대 관건인데 이번 실사 중 한 호텔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휠체어 선수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 놓은 게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에릭슨 회장은 “내년 대회를 대비해 올 11월 열린 ‘시범경기’를 통해 경기 진행 등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진다”면서 “앞으로 광주대회를 소개할 수 있는 영문 홈페이지도 준비되었으면 한다”며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한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내년 10월6일부터 8일간 열린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는 단일 종목대회로는 세계 최대규모로서 여러 국제대회를 통해 참가자를 갖춘 선수들만이 출전하는데 이번 대회에는 50여개국 302명이 기량을 겨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릭슨 회장은 “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 중 300여권 내 선수들이 출전하는 수준 높은 대회로 ‘단일종목 작은 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면서 “탁구가 세계적으로 인기 종목을 증명하고 동시에 광주를 다시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팀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남자 휠체어 부문은 전력 강하지만 여자 휠체어·남녀 스탠딩 부문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개최국에 주어지는 각 부문 자동출전권(1명씩) 이점을 잘 활용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실사를 위해 광주를 처음 방문한 에릭슨 회장은 “체육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회 등 각계 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에 정말 감명 깊었다”면서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뤄질 것이다”고 확신했다.

이번 실사단은 22일 5·18국립묘지와 시민체육관 등을 둘러본 후 23일 출국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임경희, 女 하프마라톤 4년만에 한국신

日 대회서 1시간11분14초 우승

임경희(27·수원시청)가 여자 하프마라톤 한국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임경희는 22일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에서 열린 제31회 이누야마 하프마라톤(21.0975km) 여자부에서 1시간11분14초로 우승, 이은정(28·삼성전자)이 2005년 4월 독일 베를린대회에서 작성한 한국기록(1시간11분15초)을 1초 앞당겼다.

임경희는 2002년 세운 자신의 하프마라톤 종전 최고기록(1시간13분47초)도 2분 이상 줄였고 2위로 들어온 박호선(삼성전자·1시간15분16초)을 4분 이상 따돌리고 독주 끝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유망주로 평가받는 임경희는 그동안 골반 부상으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으나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은정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 /연합뉴스

‘부상회복’ 박진만 WBC 합류

야구대표팀이 내야 수비의 핵 박진만(33·삼성)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최종 엔트리에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센트럴 오아후 리지널파크에서 전지훈련 중인 대표팀은 21일 WBC 조직위원회로부터 ‘최종 엔트리 제출 후 부상자가 나와도 예선전이 열리기 하루 전인 3월4일까지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는 답을 얻고 박진만을 22일 최종 28명 명단이 넣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유격수는 박진만과 박기혁(롯데) 두 명으로 결정됐다. 대체요원 1순위로 평가된 손시헌(두산)은 박진만의 상태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되면 3월4일 소집될 수 있다. 박진만이 대표팀에 남으면 3루수 후보인 최정(SK)과 이범호(한화) 중 한 명이 최종 명단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경주 11언더 공동 3위 PGA 노던트러스트 3R

최경주(39·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트러스트투르에서 최종일 합계 추격전을 벌이게 됐다. 최경주는 22일(이하 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비에라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4개를 골라내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경주는 사흘동안 11언더파 202타를 쳐 공동 3위에 올랐지만 시즌 초반 부진의 늪에 빠졌던 작년 대회 우승자 필 미켈슨(미국)이 9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16언더파 197타로 단독 선두로 나섰다. 올 시즌 3개 대회에 출전, 한차례 컷오프에다 톱10에 한번도 들지 못했던 미켈슨은 이번 대회들어 그린 적중률 77.8%, 그린 적중시 평균 퍼트수 1.6개를 기록하며 절정의 샷 감각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9세 아마추어 골퍼 이진명 유럽프로골프 최연소 우승

아마추어 신분의 뉴질랜드 교포 이진명(19·영아 이름 대니 리)이 세계 강호들이 출전한 프로골프대회에서 우승하는 이번을 일으켰다. 이진명은 22일 호주 퍼스의 바인스 리조트 골프장(파72.7천101야드)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쥘리위크 클래식 4라운드에서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7개를 잡아 5언더파 67타를 치는 팽타를 휘둘렀다. 합계 17언더파 271타, 단독 1위로 경기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기다리던 이진명은 챔피언조에 있던 로스 맥거윈(잉글랜드.16언더파 272타)의 이글 퍼트가 빛나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공동 2위는 맥거윈과 함께 켈리페 아길라(칠레), 후지타 히로유키(일본) 3명의 선수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23일(월) ▲2009 챔피언스투어 디에이스그룹 클래식 FR(08 : 30·SBS골프) ▲08/09 NBA(LA레이커스 : 미네소타) (09 : 00SBS스포츠) ▲2009 핸드볼 큰잔치 여자부(부산건설 : 부산시설공사)(13 : 50·SBS스포츠) 남자부 <부산 : 성균관대>(15 : 30·SBS스포츠) ▲08/09 여자프로농구(우리은행 : 신한은행)(18 : 50·SBS스포츠) ▲프로월드컵 다이내믹 복싱 22회(19 : 00·MBC ESPN)

Advertisement for '남성정력' (Male Power) featuring a product bottle and text about health and vitality.

Advertisement for '중고자동차 전자중매인·판매' (Used Car Electronic Brokerage/Sa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주]나눔재용 무역상사.

Advertisement for '남성정력' (Male Power) featuring a man's face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

Advertisement for '큰놈' (Big Guy)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an and text about a health product.